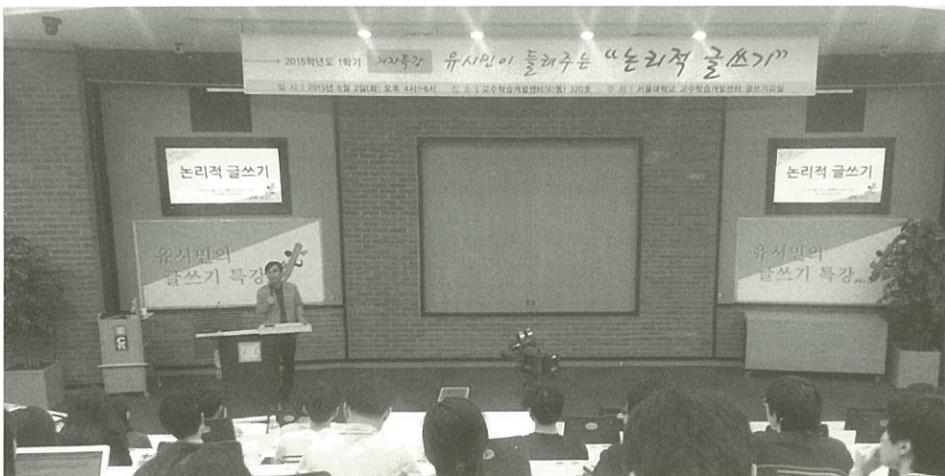


글쓰기교실 저자 특강 : 유시민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에서는 학문 연구나 저술 활동 등, 대학생들의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글쓰기의 가치와 방법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올해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의 저자 유시민(柳時敏) 작가를 모시고 <유시민이 들려주는 “논리적 글쓰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2015년 6월 2일 교수학습개발센터 61동 320호에서 열린 강연의 풍경과 내용을 정리해본다.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만에 150명의 정원이 모두 찼을 정도로 이번 강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연 당일 빈 좌석이 생기면 입장할 수 있다는 공지에 강연이 시작되는 오후 4시가 가까워오자 사전 접수를 한 신청자는 물론이고 접수를 하지 못했지만 강연을 꼭 듣고 싶어 왔다는 사람들이 다수 찾아와 안내 접수대가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사회자가 유시민 작가의 이력을 소개한 후 관중의 힘찬 박수 속에 유시민 작가는 단상에 올랐다. 유시민 작가는 대학에 다니던 시절 졸업논문을 쓰던 경험을 들려주며 글쓰기의 어려움을 겪는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 강연이 학생들 스스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 ● ●
박미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유시민이 들려주는 “논리적 글쓰기”〉라는 주제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연은 글쓰기의 목적과 성격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왜 글을 쓰는 것일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자 글을 쓴다. 그런데 글쓰기가 자기표현의 한 방법이라 할 때, 그것은 표현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글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표현으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고찰은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통한 소통의 가능성과 독자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다.

글은 하나의 텍스트이다. 텍스트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해석이 필요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는 글을 읽고 글을 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한 메시지를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독자는 저자와는 다른 배경지식과 동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텍스트에 담고자 했던 그것 그대로 읽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한 바를 독자가 읽어내기를 원한다면,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텍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독자는 이 컨텍스트를 통해 저자가 표현하고자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유시민 작가는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사진에 대한 해석을 예로 들어 보여주었다. 양상하게 마른 채 엎드려 있는 아이와 그 뒤에서 아이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를 찍은 사진이 있다.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텍스트 자체는 보는 이에게 말을 걸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또는 독자는 이 사진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봄으로써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풀리처상을 받은 이 사진은 『뉴욕타임즈』에 실렸는데, 이때 사진이 찍힌 시기, 장소, 사진의 배경이 되는 수단의 내전 상황 등 관련 정보가 함께 제시되었다. 아마도 이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나 『뉴욕타임즈』 편집부는 사진을 통해 수단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컨텍스트와 함께 사진을 본 독자들 중 일부는 신문사에 아이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표출했다. 이는 독자들이 텍스트를 읽은 방식으로, 『뉴욕타임즈』의 편집부나 사진작가는 예측하지 못한 방식이었다.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이는 『뉴욕타임즈』 편집부나 사진작가는 독자보다 많은 컨텍스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제공된 컨텍스트 안에서 사진을 해석하면서 아이를 구하지 않은 사진작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내비쳤다. 그러나 구호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의 전염병 감염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보호 장비 없이 난민과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동강령을 사진작가가 전달받은 바 있다는 또 다른 컨텍스트를 고려한다면 분노를 표출했던 독자들과는 또 다른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즉 어떤 컨텍스트를 알지 못하면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거나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다. 사진작가나 『뉴욕타임즈』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함께 제공했어야 했던 것이다.

컨텍스트가 결여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텍스트 해석의 어려움에 대해 강연은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통해 보여주었다. 비비안 마이어는 1950-60년대 뉴욕의 풍경 등을 담은 약 15만 장의 사진을 남겼다. 이 사진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비비안 마이어가 사진을 찍은 의도와 사진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비비안 마이어가 사진을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에 대한 정보조차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텍스트 자체만 보고 사진의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바를 추론하고 짐작할 수 있을 뿐 작가의 의도에 대한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독자가 자신이 쓴 텍스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일부러 장벽을 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글을 쓸 때 컨텍스트의 결여로 인해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글에서 컨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강연은 본격적으로 논리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글을 쓸 때는 기법 이전에 자신이 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가부터 점검해보아야 한다. 글이 자기표현이라고 할 때,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시민 작가는 말과 글의 차이를 통해 말로 하면 쉬운데 글로 쓰면 어렵다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족한 단계일 가능성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사유를 넓힐 수 있는 전략적 독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 분야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 사유를 확장했다면 그 다음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써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 글을 쓰고자 하다면 먼저 주제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제를 다루는 데 핵심적인 정보를 글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정보를 포함시킬지 결정했다면 그 정보들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논리적으로 배치하고 연결해야 한다.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문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문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어서 유시민 작가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해야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문장을 쓸 수 있으며,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조사, 무생물주어나 피동표현 등은 피하고 정확한 문장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을 쓴 후 자신의 글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읽었을 때 호흡이 편하고 쉽게 읽히는 글이어야 눈으로 볼 때에도 쉽기 때문이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 후, 나머지 시간은 학생들의 질의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질문은 글쓰기의 목적에 대한 것이었다. 글쓰기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논리적인 글보다 감성적인 글에 더 쉽게 공감을 하고 설득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글쓰기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글은 남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자기표현으로서의 글쓰기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모르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해석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글이라면 그때는 꼭 논리적 글쓰기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강연의 주제인 ‘논리적 글쓰기’는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이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자와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지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글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글쓰기는 여러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머릿속으로 구상할 때와 실제 글을 쓴 결과물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비누조각으로 자화상을 조각할 때도 그렇듯이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머릿속의 구상이 현실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구상과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은 글의 수준에 대한 욕심이 많은 반면 글쓰기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이라고, 눈높이를 낮추고, 지속적으로 글쓰기 훈련을 해서 실력을 늘리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이 밖에도 이번 강연의 주제와는 다소 어긋나지만 좋은 문학작품의 요건이나 문체의 특징 등 글쓰기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대답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작가는 강연을 듣는 것보다도 글쓰기는 많이 써 봐야 실력이 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멈추지 말고 노력해서 멋진 글을 쓰는 지식인이 되기를 당부하는 것으로 강연을 끝맺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학문 탐구 과정과 의사소통 행위로서 글쓰기를 수행한다. 이때 왜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논리적 글쓰기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글을 잘 쓸 수 있는가를 유시민 작가는 이번 강연을 통해 제시해주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와 경험을 통한 사유의 확장과 오랜 글쓰기 훈련이 필요하며, 지름길은 없다는 것이 이 강연의 핵심이다.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와 세밀한 글 읽기를 통한 활발한 지적 소통이 대학에서의 글쓰기의 본령임을 새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